

강남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시대 연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기존의 저소득 가정 중심의 장학사업의 한계를 넘어, 소득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는 ‘강남형 장학사업’을 본격화하며 올해 313명의 학생에게 총 5억5천7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남형 장학사업은 민선 8기 대표 정책으로, 개청 50주년을 맞아 강남의 미래 100년을 짚어질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 사업은 기존 장학 제도와 달리 강남의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해 설계됐다.

교육 수준과 기대가 높은 지역 특성상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임에도 소득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현실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학업 성취뿐 아니라 인문, 예술, 체육, 과학,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며, 학생들은 멘토링, 대학탐방, 방학캠프 참여 등으로 지역사회에 재능을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등학생 29명, 대학생 44명 등 총 73명에게 1억1천7백만 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는 고등학

생 40명, 대학생 200명 등 240명에게 4억4천만 원을 지급해 지원 규모가 상반기 대비 3.7배 확대됐다. 특히 하반기 장학금은 전액 외부 기탁금(지정기탁금 및 민간 장학재단 등)으로 조성됐으며, 강남구는 상반기 첫 사업 당시 5천만 원만을 구비로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장학금 중 약 90% 이상이 지역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마련된 셈이다.

특히, 다자녀 가정 대학생 지원은 강남 특유의 교육열과 높은 생활비·교육비 부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디지털 베테랑’ 관악구, 국민행복IT경진대회 금상·동상 쾌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IT경진대회’에서 관악구 주민 2명이 금상과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국민행복 IT경진대회는 매년 장년층, 고령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PC와 모바일 활용 능력 등 디지털 역량을 겨루는 전국 규모의 대회이다. 올해 대회는 ▲장애인(PC) ▲고령층 1, 2(모바일 기기) ▲장

년층(모바일 기기) ▲다문화가족(모바일 기기)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장년층 부문에 출전한 선민학 씨는 뛰어난 IT 활용 능력을 선보이며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령층 1부문에 참가한 유동신 씨도 우수한 성적으로 ‘동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관악구에서 진행되는 정보화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배운 노력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7월 각 시도별 지역 예선 대회를 거쳐 선발된 전국의 참가자 248명은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본선 대회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을 겨뤘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관악구의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지원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장애인 모두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천구, 전입 1인가구에 다이소 상품권 제공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5년 금천구로 전입한 1인가구를 돕기 위해 17일 오후 6시까지 ‘어서와 금천은 처음이지’ 3분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새롭게 전입한 1인가구가 낯선 지역에서 잘 정착하고 지역의 일원으로 구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어서와 금천은 처음이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분기별로 80명, 일 년에 총 320명을 대상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 안내서와 다이소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 참가는 2025년 4월부터 9월 사

이 금천구로 전입한 1인가구(금천구 내 전입 포함)면 가능하다. 1순위는 7-9월 전입자다. 1순위 모집 인원이 미달될 경우 4-6월 전입자(2순위)에게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사업 참가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금천구청 누리집, 1인가구 누리집, 금천구 가족센터 누리집, GS25 내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존 ‘1인가구 나랑노랑’ QR코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초본(주소

변동표 포함) ▲개인정보동의서 ▲세대분리 증명서류(해당 시) 등이다.

구는 참가 신청을 마감한 후 11월 중 일괄적으로 다이소 상품권과 1인가구 지원사업 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천구의 경우 2025년 9월 기준 1인가구 비율이 53.5%를 차지한다. 이에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혼자 있지 말고 나랑 놀자’는 의미를 담은 1인가구 정책 홍보존 ‘1인가구 나랑노랑’을 통해 지원사업을 알리고 있다.

서울·인천·경기·강원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245호)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재정 및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이 주요 현안과 국고지

원 요청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민선8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민의 일상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은 재정규모가 크지만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과 노후한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건전한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며 “불합리한 재정차별로 서울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이나 혜택은 15위에 머물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 지자체처럼 합리적인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당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는 ‘차등 국고보조를 개선’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문화유산 주변부 관리 권한 확대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편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국고지원도 요청했다.

이장성 기자

데이터가 그린 길, 시민이 만든 교통약자 동행 노선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대상, 시립대 팀 ‘GeoPath’ 서울시내 맞춤형 버스 노선 탐색

서울시는 교통·생활 인프라와 행정통계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자율주행버스의 최적 운행 경로와 정류장 입지를 도출한 ‘GeoPath’ 팀이 ‘2025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의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학생들로 구성된 GeoPath 팀은 교통량·고도·생활 인프라 등 공간 데이터를 분석해 경사지 지역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설계하고, 서울형 교통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심사위원단은 “분석 방법과 절차가 우수하고, 분석 구조가 매우 체계적이었다”며 “제안된 자율주행 노선은 향후 마

을버스나 교통 소외지역 환승체계 개선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총평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44개 팀, 113명이 참여해 교통, 복지, 환경, 도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로 만드는 서울의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고등학생 7개 팀이 참여해 수업에서 배운 데이터 분석 역량을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해보는 등, 데이터 시민교육의 가능성도 엿보였다.

심사위원단은 “올해는 주제의 명확성과 분석의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며, “정책 실현 가능성과 시민 체감도가 조화를 이룬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았다”

고 총평했다.

대상 수상팀 외에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눈에 띄었다.

시립대 ‘Night Knights’ 팀은 OD 데이터 기반으로 심야버스 신설 노선을 제안했고, 대학연합 ‘무심사’ 팀은 폭염 취약 분석을 통해 스마트 워터 최적입지를 선정했으며, 서울대 ‘마요’ 팀은 공중화장실 접근성을 분석을 대학연합 ‘시너지’ 팀은 따릉이 입지 최적화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수상자에게 상금과 상장(대상·특별상 각 20만 원, 최우수상 1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을 수여하고, 수상작의 분석 결과를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함께 만드는 내일...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법정기념일 '소상공인의 날', 11.5(수) 서울광장서 우수 소상공인 표창, 세레모니 등 기념식

서울시는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오는 11월 5일(수) 서울광장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기념일을 기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인식 제고와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서울특별시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 ▲소상공인 마켓 ▲체험프로그램(문화공연, 스탬프투어 등) ▲정책홍보관 등 풍성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행사의 핵심인 ‘기념식’은 사전 공연



(팝페라 라무체)와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은 오프닝 영상,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로 시작해 우수 소상공인 표창 수여, 기념 세레모니, 문화공연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14명의 우수 소상공인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서울시·시의회·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카드삽입 퍼포먼스를 통해 ‘2025 소상공인의 날’ 축하메시지를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기념식 후에는 버스킹, 악기연주 등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이끈다.

서울광장에는 ‘소상공인 마켓’(34개 소)이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되며 서울 각지의 소상공인이 선보이는 수공예품,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퍼스널 컬러 진단, 캐리커처, 즉석 사진 등 참여형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디자인·역사·파노라마-미래’ 'DDP 루프탑 투어', 652m 개방

웨딩 프로포즈·노을 감상·출사·드로잉 등 스페셜 프로그램 4종 동시 운영

디자인·역사·파노라마·미래 네 개의 시간 축이 교차하는 서울 한복판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곡선 지붕을 따라 도시가 품은 이야기를 몸소 ‘읽고’, ‘걸으며’, ‘느끼는’ 특별한 652m 여정이 시민을 기다린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은 7일(금)부터 23일(일)까지 DDP 루프탑 전 구간 652m를 개방해 ‘서울을 유영하다(Seoul Drifting)’ 콘셉트로 DDP 루프탑 투어를 운영한다.

DDP 루프탑 투어는 상반기 시범운영

(4.11~6.1) 당시 만족도 94%, 재참여 의사 역시 94%를 기록할 만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1구간(디자인)에서는 남산·을지로·낙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 지형 축을 관찰하고, 2구간(역사)에서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한양도성까지 과거를 품은 DDP의 곡선 건축을 해설로 만난다.

3구간(파노라마)에서는 동대문 패션타운·홍익지문·신당동을 조망하는 360도 전망을 감상하며, 4구간(미래)에서는 역사문화공원과 DDP 곡선이 만드는 과

거·현재-미래의 레이어를 완성한다.

이번 투어에서는 세계가 주목한 디자인어 ‘강혁(KANGHYUK)’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틸(Teal)·핑크(Pink) 색상의 전용 투어복을 착용하고 루프탑을 걷게 된다.

강혁은 업사이클링과 혁신적인 소재 사용으로 파리 패션위크를 비롯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대표 디자이너 브랜드로, 투어복을 통해 참여자에게 ‘서울을 읽는’ 감각적 경험을 전달한다.

이장성 기자

